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섬박람회 청결활동 지원

돌산 상포지구 3만평 일대 청결활동...청소차 3대 지원·임직원 봉사 참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송병구)은 최근 돌산읍 상포지구 일원에서 실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집중 청결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행사장 주변 청결활동을 통해 깨끗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청결활동에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해 여수시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돌산읍사무소, 돌산읍 이통장협의회, 농업인 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상포지구 일원 약 3만평 규모의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참여자들은 도로변, 공터 일대를 중심으로 청결활동을 진행했으며, 공단은 쓰레기 청소 집게차 2대와 수거차 1대를 지원하고 임직원 24

명을 청결활동에 투입해 수거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탰다.

송병구 이사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수시의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섬박람회 지원을 위해 홍보 추진단, 생활쓰레기 수거 지원 추진단, 박람회 교통대책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집중 청결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섬박람회 개최 전·중·후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환경관리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도심권, 해안도로 등까지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발생이 빈번한 구간에 대해서는 순찰 주기를 단축하고, 현장 즉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환경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청소차량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시간대별·구역별 맞춤형 청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과 유관기관,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정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섬박람회를 계기로 도시 전반의 환경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유빈 기자



섬박람회 대비 돌산 상포지구 집중 청결활동 현장 사진

순천시, 2026년 전기화물차 2차 추가 보급사업 시행

순천시는 친환경 물류 체계 전환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 2차분 추가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가 공고는 상반기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공고 물량을 초과한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반기 추경을 통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약 30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도 물류 수요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도비 등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 공고는 8일 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식 발표되며,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 시청 제공

/이유빈 기자

광양시, 실습공간 '달그락 청년 공작소' 개소

광양시는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郷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요 내빈과 교육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년문화연구소 '아작'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달그락 청년공작소'는 모듈러 하우스 방식으로 조성된 연면적 140㎡ 규모의 창업실습공간이다. 내부에는 ▲공유오피스 2실 ▲실습실 2실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됐다.

시는 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청년 창업 달그락 맵그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기 교육

생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예담참고에서 창업 교육을 이수한 뒤 '달그락 청년공작소'에서 창업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외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1인 1실 형태의 주거공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생겨 기대가 크다"며 "교육과 실습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외지 청년들이 광양에 머물며 창업 교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보건의료원, 재가암환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건강 회복 지원 강화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재가암환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력 증진 프로그램 중심의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재가암환자와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연계해 신체 활동 증진과 정서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체력증진프로그램은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매주 월·수·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반다비체육센터 1층에서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암 치료 이후 회복력 향상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규 기자

보건의료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6일 사전 체력 및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의 기초 건강 상태와 정서 상태를 점검해 개인별 건강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인 7월 6일에는 사후 평가를 진행해 건강 상태 변화와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오는 6월 30일 보건의료원 2층 건강마루에서는 심리지지 프로그램 '내 안의 불안 다스리기'와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원예 활동이 열린다.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구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남 구례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같이 발송되며,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고 마감일까지 누락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성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